

답변

식민지 공업화와 고용 없는 성장

선 재 원*

이 글은 김낙년 교수의 본인 논문(선재원 2010b, 이하 ‘선논문’)에 대한 논평 게재 요청을 경제사학회 편집위원회가 받아들여 그 논평(이하 ‘김논평’)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김논평’은 김낙년(2010, 이하 ‘김논문’)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선논문’에 대한 비판과 ‘김논문’의 정당성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김논평’은 ‘선논문’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없이 비판하고 있으며, ‘선논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 없이 오해에 입각하여 ‘김논문’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선논문’ 취지 재론

본인은 김낙년 교수를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는 식민지 공업화에 관한 최근의 수량적 분석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국 연구자에 의한 장기경제통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김낙년 편 2006)는 세계 경제사학계에서의 지위를 높이 끌어올린 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선재원 2010a; 선재원 2010c). 본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또 한 번의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선논문’의 기본 취지는, 첫째 有業者에 관한 무리한 추계를 하지 않고 국세 조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업자의 감소를 식민지 공업화 현상과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었다. 즉, 현존하는 자료로 유업자를 추계하는 것은

*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E-mail: sun@ptu.ac.kr

무리이며 유업자의 감소를 결정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국세조사 결과를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 식민지 공업화 현상과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둘째, 해방 후와 비교한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기 유업자의 감소현상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었다.

‘김논평’은 이러한 ‘선논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김논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논평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논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비판

‘김논평’은 ‘선논문’을 金哲(1965)과 부적절하게 동일한 시각과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논평’에서 지적한 것을 인용하면 “선재원(2010)과 같이 국세조사 유업자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구태도는 金哲(1965: 163-71)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식민지기 광공업의 발달에 비하여 고용의 성장이 저조하다는 점을 이 시기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예컨대, 조선의 산업 근대화가 일본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 경우 고정자본 투자에 비해 고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든지, 이들과 조선의 중소기업과의 산업연관이 미약했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 그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림 1을 보면, 여자 유업자는 1930-1940년에 28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격감하였지만, 남자는 2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남녀간 양상의 차이를 식별하지도 않은 채, 전체 유업자수의 감소를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그렇지만 ‘선논문’은, 첫째 어디에서도 남자 유업자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없고, 둘째 ‘선논문’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내용은 ‘김논문’과 ‘김논평’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남자 유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유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유업자수가 감소한 현상을 말한 것이었다. 또한 셋째, ‘선논문’은 金哲(1965)이 해방 후 총인구에 대한 취업자수 비율이 식민지기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의 하나로서 식민지기의 조사결과가 실제로 다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엄격하게 국세조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선논문’은 金哲(1965)이 지적한 1955년에 비해 1960년의 취업자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1966년

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논문’에서 남자 공업노동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부정하면 본인의 기존 연구(선재원 2001; 宣在源 2006)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선논문’의 ‘김논문’ 비판 재론

1. ‘엄격해진 기준’ 주장의 근거 부족

‘김논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미 ‘선논문’에서 지적했듯이 1940년 국세조사의 유업자수가 엄격해진 조사기준에 의해 1930년에 비해 감소된 결과로 집계되었다는 주장인데, ‘김논평’에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김논평’에서 “1930, 1940년의 유업자 조사 매뉴얼을 검토해 보면 명시적인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농촌 가내공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업과 무업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조사 매뉴얼이 충분히 상세한 규정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두 시점의 국세조사 유업자 조사결과를 가능한 한 세분된 항목으로 비교하면서 유업자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시점의 유업자 조사기준이 달리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첫째 ‘김논문’과 ‘선논문’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듯이 1930년 및 1940년 조사 매뉴얼 모두 동일하게 유업자와 무업자의 경계가 불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종사자(手傳)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제외’하라고 조사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낙년 교수는 실제조사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상에 기초하여 국세조사와 전혀 다른 통계 계열인 ‘공업제조호수 통계’의 결과에 입각하여 방직업에서의 유업자 감소가 실태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33년과 비교한 1939년의 가내공업 제조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1930년 국세조사에는 14만 명이 유업자로 파악되었던 마직물 가내공업 종사자들이 1940년에도 상당수가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업자로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30년의 유업자 파악의 기준이 느슨했다가 1940

년에는 엄격해진 결과라고 판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낙년 교수는 이러한 전혀 다른 계열의 통계를 비교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김논평’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방법 및 기준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구 및 직업 대한 조사인 ‘호구조사’와 국세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cross check의 의미가 있지만, 조사목적이 다른 생산액 및 생산호수 조사와 cross check하는 것은 의미가 적을 뿐더러 실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즉, 무리한 추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30년대는 김낙년 교수가 여러 연구에서 실증하고 있듯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이므로 ‘공업제조호수 통계’의 비교가 1930년과 1940년의 비교가 아닌 1933년과 1939년의 비교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만, 즉 변화의 폭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국세조사의 결과를 통한 납득할 수 있는 유업자 통계의 추계가 가능하려면 산업별 및 직업별 ‘지위별 유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즉, 산업별 및 직업별 ‘지위별 유업자’ 소분류(업주, 관리인/기술자/직원/감독, 노무자, 手助, 기타 종업자)의 국세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 구성을 재편성하여 조사결과 요약과는 다른 납득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原 期 1979).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의 경우 현재 ‘지위별 유업자’에 관한 정보를 1940년에 한정하여 그것도 대분류 산업별 결과요약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유업자 통계를 새롭게 추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식민지 공업화와 총유업자 감소에 관한 정합적 이해

본인은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국세조사의 유업자 통계결과가 실태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선논문’에서 현존하는 자료와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유업자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국세조사 결과가 실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낙년 교수는 ‘김논문’과 ‘김논평’ 모두에서 실태를 설명하려는 본인의 의도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본인이 ‘선논문’에서 국세조사의 결과가 실태를 반영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논리적 수순으로 분석한 부업자 및 ‘기타 업무를 갖는 자’에 관한 분석을 ‘김논평’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기 대만 총인구의 4.7%에 해당하는 본업 없는 여자 부업자를 추가하여 과소평가했던 총유업

자수를 수정하여 추계한 기존의 연구가 있기에, 식민지기 조선의 경우에도 부업자에 관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한 것이다(선재원 2010b: 129-30). 검토한 결과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대만과는 달리 부업자 중에 본업 없는 부업자는 적었고, 본업 있는 부업자가 대부분이었기에 부업자가 공장제의 확대과정에서 직업을 대규모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총유업자의 감소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국세조사와 비교하여 조사의 精度가 떨어지지만 시계열 비율변화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연보』의 조사결과를 통해 국세조사의 결과와 정합적인 여자 유업자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였다. 즉, 1930년과 비교한 1940년의 여자 ‘기타 업무를 갖는 자’의 남자에 대한 비율이 여자 주업자의 남자에 대한 비율과 더불어 감소하고 있었고, 가계의 부차적 소득자인 ‘기타 업무를 갖는 자’의 비율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유업자의 감소를 주도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본인은 ‘선논문’에서 이상과 같이 식민지 공업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자수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충분히 논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에, 유업자 감소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노동생산성 향상 현상을 지적하였다. 학술논문이란 실증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련연구와 정합성을 가지는가도 중요한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김논평’은 급격한 공장제 확대에 따라 공장 노동생산성 향상 현상과 관련한 김낙년(2003)에 대한 ‘선논문’의 언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축하면서도, 동일한 논점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로서 제시한 박기주(2006) 및 Kim, Duol and Ki-Joo Park(2008), 그리고 초기 공업화 시기의 유업자 감소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Claudia Goldin(1995)와 ‘김논문’의 주장과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논문’은 ‘공업화=고용확대’라는 선입견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추계하지 않더라도 식민지 공업화기의 ‘고용 없는 성장’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공업화 초기의 총생산액 증가현상과 총고용 감소현상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선논문’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김논평’에 대해 비판한 부분만을 집중하여 비판한 ‘김논평’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투고일: 2011. 6. 17 게재확정일: 2011. 6. 18)

참 고 문 헌

- 김낙년(2003), 『일제하 한국경제』, 도서출판 해남.
- _____편(2006), 『한국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0), 「식민지기 조선의 유업자: 호구조사와 국세조사」, 『경제사학』 48, 125-66.
- 박기주(2006), 「식민지 조선의 공장생산액과 노동생산성 증가」, 『경제사학』 40, 83-117.
- _____ (2007), 「일본과 비교한 식민지조선의 공장노동생산성」, 『경제학연구』 55-4, 5-33.
- 선재원(2001), 「노동시장제도」,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91-327.
- _____ (2010a), 「경제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미시경제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웹진』 8(<http://ssc.nrf.go.kr/>).
- _____ (2010b), 「식민지 공업화와 유업률 감소: 1930·1940년 국세조사의 검증과 해방 후와의 비교」, 『경제사학』 49, 115-46.
- _____ (2010c),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경영사학』 25-4, 97-112.
- 金 哲(1965), 『韓國の經濟と人口』, 岩波書店.
- 原 朗(1979), 「階級構成の新推計—1920-1940年國勢調査による再検討—」, 安藤良雄編, 『兩大戰間期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學出版會, 325-64.
- 宣在源(2006), 「近代朝鮮の雇用システムと日本: 制度の移植と生成」, 東京大學出版會.
- Goldin, Claudia(1995), "The U-Shaped Female Labor Force Func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History," in T. Paul Schultz, ed., *Investment in Women's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1-90.
- Kim, Duol and Ki-Joo Park(2008), "Colonialism and Industrialisation: Factory Labour Productivity of Colonial Korea, 1913-37,"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8, No. 1, 26-46.